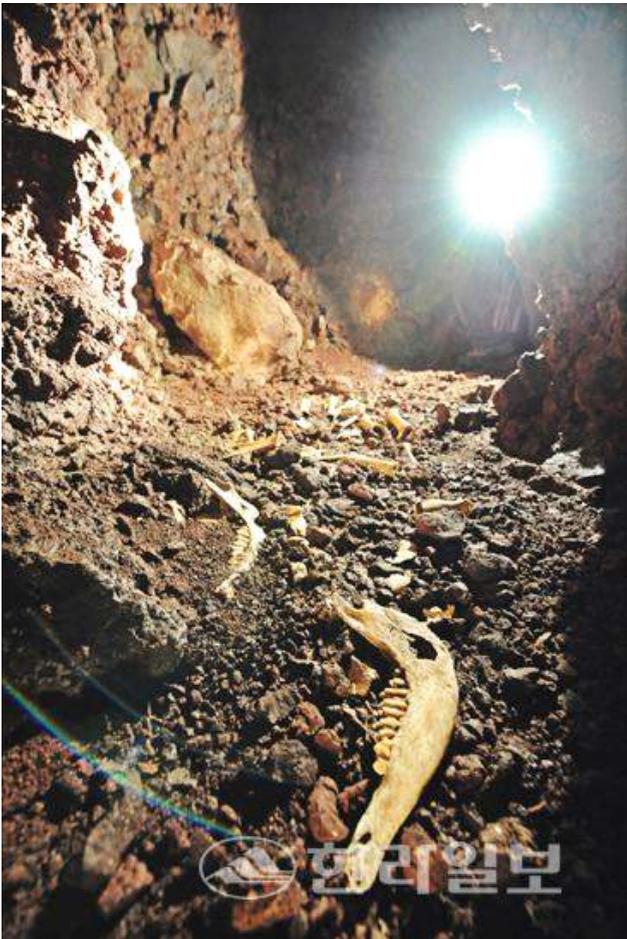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103)

제3부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41 (4)108여단 주둔지-(2)부대오름
오름 전체 지하갱도로 구멍 송송

입력 : 2008. 05.22. 00:00:00

갱도 15곳 등 밀집 ... 주저항진지 구축
사령부 주둔지 표시 日군사지도와 일치
'4·3땀 경찰주둔지 이용' 독자가 알려와



▲부대오름 북쪽 능선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동물 뼈 잔해가 흩어져 있다. /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일본 제국주의가 제주도에 구축한 군사시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아늑한 오름은 일본군의 전쟁기지로 요새화 됐다. 그야말로 '오름 사면이 온통 구멍이 송송 뚫렸다'고나 할까. 취재팀이 수차례 탐사를 벌인 부대오름도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이 일대에 대한 조사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부대오름(조천읍 선흘리 소재·표고 468.8m)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핵심공간인 거문오름과 맞닿아 있다. 이 일대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제108여단 병력 및 여단사령부 주둔지로 알려져 왔다. 1945년 작성된 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에는 이 일대가 '주저항진지대'로 나타난다.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는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서 방어해야 하는 핵심진지다. 통상 보병 1개 대대를 기본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부대오름 일대가 중요한 전략요충지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취재팀은 지난 2월부터 제주 동부지역에 대한 집중탐사를 통해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이 구축한 많은 군사시설들을 찾아냈다. 이 일대에 대한 기초조사는 2003년부터다. 일제가 패망한 지 6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생생한 현장은 섬뜩할 정도다.

취재팀이 부대오름에서 찾은 갱도는 모두 15곳. 이 가운데 10곳이 진입이 가능한 지하 갱도진지다. 대부분 스킨리아(scoria)층을 굴착했다. 나머지는 오름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입구

가 막혀있는 상태다.

부대오름은 전형적인 U형(말발굽형) 분화구를 가졌다. 분화구 바깥에서 제일 안쪽까지의 길이는 약 2백50m에 이른다. 너비는 약 1백 m 정도 된다. 넓은 분화구 맞은편으로는 물결처럼 일렁이는 듯한 거문오름의 능선이 생동감 있게 다가선다.



일본군 갱도진지는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내린 U형 오름 능선의 안팎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오름 남쪽 능선 분화구 안쪽 사면의 갱도진지는 전체길이가 70여m 된다.

이 갱도진지는 입구가 북쪽 방향, 즉 맞은편 분화구 안쪽 사면을 향해 나있다. 갱도는 내부에 통로형식으로 된 크고 작은 공간이 4곳 마련돼 있다. 갱도의 끝부분은 환풍구가 뚫려 있다. 그곳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늦겨울의 햇살이 어두컴컴한 갱도내부를 구석구석 비춘다. 끝자락은 2~3명이 생활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마련돼 있다.



▲부대오름 남쪽 능선의 갱도진지 입구(사진 위)와 북쪽 능선 갱도진지 내부.

또 하나의 갱도는 이곳과 서쪽으로 5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찾았다. ㄷ(디근)자형 구조로 총 길이는 약 70m 정도 된다. 이 갱도 역시 내부에 통로 형식으로 된 공간이 2곳 만들어져 있다. 아마도 내부에서 통로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취재팀이 2005년 예비조사에서 찾아낸 갱도진지는 그 사이 토사층이 흘러내리면서 입구가 막혀버렸다.

북쪽 능선의 남쪽 사면에서도 지하갱도는 확인된다. 이곳의 갱도는 20여m 정도로 소규모다. 갱도 바닥에는 작은 동물뽀가 흩어져 있다. 이 갱도는 ㄱ(기역)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분화구 쪽의 입구는 겨우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지만 북쪽 지점에 환풍구가 뚫려있어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일본군이 만든 지하갱도는 오름 남쪽 능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남쪽 오름 사면은 부소오름을 마주하는 지점이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갱도진지들은 길이가 45m, 30m 정도다. 이외에도 입구가 함몰된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부대오름의 지하갱도들은 그 후 해방공간의 4·3 당시에는 경찰들이 이용했었다고 어느 독자가 취재팀에 알려왔다. 이곳에 주둔하면서 무장대에 대한 토벌작전이 전개됐었다고 한다. 일제가 구축한 지하갱도들은 이처럼 4·3당시에는 군경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대오름의 지하 갱도진지 구축양상은 108여단사령부 및 주저항진지로 표시된 1945년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만큼 일제가 일본토 사수를 위해 섬뜩하리만치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 했음을 보여주는 아픈 역사현장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 포커스]

'부대오름' 명칭 軍부대와 관련 있을까

일본군 제108여단사령부 등 많은 병력이 주둔했던 부대오름은 이름자체가 '부대오름'이어서 흥미롭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 시기 일본군 부대의 주둔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설에 불과할 뿐이다.

고지도나 고문헌에서 나타난 부대악은 한자표기로 浮大岳·扶大岳·斧大岳·夫大岳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있다. 또한 富帶岳·富大岳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고문헌이나 지도에 부대악이란 이름의 등장도 18세기에 나타난다.

즉 18세기 초 지도인 '탐라지도'(1709)와 19세기 중반 지도인 '제주삼읍전도'(1827)에 부대악(浮大岳)으로 표기돼 있다. 일제강점기 훨씬 이전부터 '부대악'이란 명칭을 써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군(軍)부대를 뜻하는 부대(部隊)란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름나그네'(1955) 저자인 김종철 선생(작고)은 평안도 말로 '부대'가 '부대기' 또는 '부대알'의 준말로 화전 또는 개간지의 뜻인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